

경제불황 상황, 부모의 내-외향성 및 우울감이 부모의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Economic Hardship, Parents' intro-extrovert Personality,
and Depression on Parenting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 인간발달학과
석사과정 김보형
교수 박성연

Dept. consumer science and human development, Ewha womans university
master : Bo-Hyung Kim

Dept. consumer science and human development, Ewha womans university
professor : Seong-Yeon Park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논의 및 결론 |
| 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III. 결과 및 해석 | |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economic hardship, parents' intro-extrovert personality, and depression on parenting. The subjects were 487 seventh to ninth grade children and their parents. Data were collected through questionnaires. Children from which family experienced severe income loss perceived fathers' child-rearing attitudes as more warm/nurturant when fathers had extrovert personality. On the other hand, children under the worse paternal working condition perceived mothers' child-rearing attitudes as more warm/nurturant when mothers had introvert personality. The impacts of family income loss on mothers' rejecting/inconsistent child-rearing attitudes were exacerbated by its indirect effect through maternal depression.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외환위기가 불러온 IMF관리체제는 우리나라 경제의 구조조정 뿐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구조의 변화까지도 요구하고 있다. 근래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현상으로 신문지상이나 대중매체에서 보도되는 바와 같이 실직이나 부도로 인한 가정의 자살이 잇달아 발생하고, 가정내 폭력이나 아동학대로 이어지는가 하면, 이혼 등의 가족해체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와 위기가 가정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 아동의 발달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리라는 것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러한 변화가 어떠한 경로로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가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서는 체계적이고 장기간에 걸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일찍이 사회경제적 변화가 아동의 발달 및 사회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로는 1930년대 세계경제공황을 경험한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연구들(Elder, 1974, 1979; Elder, Liker, & Cross, 1984; Elder, Nguyen, & Caspi, 1985)과 1980년대 미국의 경기침체와 실업사태가 아동에게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들(Jonson & Abramovitch, 1985; Goldsmith & Radin, 1987)이 그 대표적인 것들이다.

1930년대 대공황의 영향을 연구한 결과(Elder, Liker, & Cross, 1984; Elder, Nguyen, & Caspi, 1985), 심한 재정적 손실을 경험한 아버지들은 긴장감으로 인해 점점 더 화를 잘 내게 되고 격렬해지며, 나아가 자녀에 대해 처벌적이고 독단적인 훈육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경제적 어려움이 부모의 심리적인 안정을 위협하며, 지지적인 아동양육 능력을 약화시킨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McLoyd & Wilson, 1990). 한편, 대부분 아버지가 가정의 경제적 역할을 담당하였던 1930년대 상황과는 달리, 1980년대 미국의 경제침체 상황에 대한 연구에서는 아버지 뿐만 아니라 많은 어머니들이 직업을 갖고 경제활동에 참여함에 따라, 어머니 역시 경제적 어려움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거나, 또는 아버지의 불안정한 심리상태로 인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Conger, Elder, Lorenz, Simons, & Whitbeck, 1992; Patterson, 1988).

이처럼 경제적 스트레스에 대한 경험은 부모 모두의 심리적인 어려움을 증가시키고, 가족내 변화 및 부모의 양육태도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가정하에, 국외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에 의하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가족간문제는 특히 청소년시기의 아동들에게 더욱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Conger 등(1992)에 의하면 경제적 어려움과 아동 후기 남아들의 적응에 대한 가족 과정 모형 연구에서 경제적 압력은 부모로 하여금 우울증이나 사기저하를 가져오고 이는 부부관계에 문제를 일으킬 뿐 아니라, 거부적이고 강압적인 훈육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청소년 자녀들의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부적응 문제를 야기시킨다. 또한, Conger와 그의 동료들(1984)의 연구에서는 정서적으로 우울하거나, 아동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어머니는 부정적인 행동을 많이 하였고, 이같은 우울증과 아동에 대한 지각의 심리적인 특성은 가정환경적인 어려움과 어머니의 긍정적인 행동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서 환경적으로 취약하더라도 어머니가 심리적으로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냐에 따라 양육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겠다.

이와 같이 불안이나 우울증 그리고 부정적인 정서가 높을수록 적절치 못한 양육행동을 보임을 알 수 있으며(Belsky & Vondra, 1993), 이러한 부모의 우울감은 경제적 상황과 부모의 양육태도간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한편, 부모 또는 가족원 모두에게 스트레스원이거나 위기를 야기하는 사건으로 가정되는 직업이나 소득상실의 경제적 손실은 반드시 모든 가정에게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즉,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개인이나 가족이 겪는 스트레스는 개개인마다 다르며, 직업이나 소득상실이 스트레스원에서 위기로 전환되는지의 여부는 그 사건에 대

한 사람들의 평가 및 그가 가진 위기대처자원에 달려있는 것으로 생각된다(Voydanoff, 1983). 따라서, 경제적 상황이 악화된다고 해서 모든 부모가 부정적 또는 적대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를 지지하는 결과로 Elder 등(1984)은 경제불황을 겪은 1930년대의 종단적인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시기의 아버지들의 비일관적이고 거부적인 양육행동은 경제불황 자체보다는 아버지의 일반적인 성격과 관련된다는 것을 시사하였다. 경제적 상황이 양육태도와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적이거나 보다는 간접적이어서, 특히 가족 구성원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성적인 특성이 경제적 스트레스가 가족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중요한 중재변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Conger et al., 1994; McLoyd et al., 1994; Elder et al., 1985; Lempers et al., 1989). 따라서, 직업변화 및 소득상실은 아동에게 있어서 직접적으로 관련된 환경의 변화는 아니지만 경제적 손실은 그것이 주로 부모의 행동이나 인성적 성향으로 인해 야기되는 변화를 통해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내-외향성 집단의 성격 차원은 스트레스를 지각하고 대처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즉, 외향적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스트레스 또는 자극을 받게 될 경우 새롭고 다양한 자극과의 접촉을 통해 일에 대한 능력이 증가되어 외부 자극을 심리적 압박감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적고, 내향성 집단은 자극을 피하거나 평소 친근한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외향성 집단보다 외부로부터의 자극에 더 민감하다(길연하, 1996). 이러한 이론적 근거에 비추어 볼 때, 본 연구에서는 외향적인 성향을 지닌 부모가 내향적인 성향의 부모보다 경제적 스트레스를 덜 심각하게 지각할 것으로 예측하며, 이러한 인성적 특성은 경제적 어려움이 부모의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완충하는 효과를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근거로, 같은 객관적인 경제적 위기상황에서도 부모마다 다른 경험을 하고, 양육행동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경제적 어려움 그 자체 뿐 아니라 부모 자신의 인성특성에 의한

것이며, 경제불황은 부모의 우울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해 부모의 양육행동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부모의 인성특성과 우울감의 중재 및 매개효과에 관한 외국연구가 많은데 비해, 우리나라에서 실행된 연구들은 경제적 위기로 인해 나타나게 되는 아동의 심리정서적 문제행동에만 초점을 두고, 경제불황이라는 상황 속에서 부모의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와 관련된 개인특성적 변인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경제적 위기로 인한 부정적 영향들은 부모의 내-외향성과 우울감의 차이에 따라 각각의 부모가 다르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되므로, 우리나라 가정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내-외향성은 개인의 고유한 성격측면으로 외부적 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반면, 우울감과 같은 정서상태는 환경에 의해 변화될 수 있는 유동적인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내-외향성과 우울감의 역할을 구분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부모의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내-외향성 및 부모의 우울감 변인들의 중재 및 매개효과를 밝혀보는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2. 연구문제

위의 연구목적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1) 경제적 어려움, 부모의 내-외향성 및 부모의 우울감과 부·모의 양육태도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으며, 이들 각각이 부·모의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 2) 가정의 경제적 상황변화가 부모의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부모의 내-외향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가?
- 3) 부모의 우울감은 가정의 경제적 상황과 부모의 양육태도간의 관계를 매개하는가?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경제불황으로 인한 타격을 중하류층에서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했으므로 중하류층 지역을 의도적으로 선정하였으며, 경기도 Y시에 위치한 중학교 1, 2, 3학년 남녀 아동(남아: 240명, 여아: 247명)과 그들의 부모를 포함한 총 487가정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51.3%)과 중학교 졸업(27.7%)이 거의 80%를 차지하여 대부분이 고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고, 아버지의 교육수준은 어머니의 경우와 유사하게 고등학교 졸업(47.9%)과 중학교 졸업(24.9%)이 절반이상을 차지하였다. 또한, 응답한 어머니들의 절반이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전업주부였고, 그 외에 자영업이나 일반판매(17.2%), 피고용 기술자나 서비스업 종사자(12.0%)로 나타났고, 아버지의 경우 약 32%가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한편, 가족 전체 평균 소득을 살펴보면 전체의 과반수 이상인 67%가 50~150만원 사이에 집중되어 있었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아동용, 아버지용, 어머니용 질문지로 구성되었는데, 아동용 질문지로는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부모용 질문지로는 부모의 내-외향성과 부모가 느끼는 우울감을 측정하였고, 이외에 어머니용 질문지에는 가정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질문을 첨가하였다. 각각의 척도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가정내 경제적 상황의 변화에 대한 척도

IMF 경제불황 이후 발생한 가정내 경제적 상황의 변화에 대한 척도는 경제불황 이후 수입의 변화, 직업의 변화 그리고 생활의 변화정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1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가정내 수입의 변화에 관한 내용은 하나의 문항으로 IMF이후 가

정내 수입을 '다소 증가하거나 그대로이다', '10% 정도 감소하였다', '20%정도 감소하였다', '30%정도 감소하였다'로 구분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조사대상 가정 중에서 수입이 IMF이전과 비교해 그대로이거나 다소 증가한 집단은 10.7%이고, 10%정도 감소한 집단은 15.9%, 20%정도 감소한 집단은 24.1%였으며, 30%정도 혹은 그 이상 감소한 집단이 49.3%에 달해, 전체 응답한 가정의 절반 정도가 심각한 수입의 감소를 경험하고 있었다.

또한, 아버지 직업의 변화에 관한 내용은 두 문항으로, 먼저 IMF이후 아버지의 직업에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를 질문하고, 만약 변화가 있었다면 IMF이후 '좀 더 나은 직장으로 옮겼다', '전보다 못한 직업을 갖게 되었다', '실직했다'로 구분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IMF이후 아버지의 직업의 변화에 대한 문항에서는 직업의 변화가 없는 집단이 63.4%로 절반이상을 차지하였으며, 이전보다 못한 직장으로 옮긴 가정 17.2%, 실직한 가정 13.8%, 좀더 나은 직장으로 옮긴 가정 5.6%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생활의 변화에 관한 내용 Lempers(1989)의 Economic Hardship Questionnaire의 9문항과 본 연구자가 구성한 3문항을 추가하여 총 1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거의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으로 평가하는 Likert식 4점척도로 구성되었다. 또한 점수가 높을수록 IMF이전과 비교하여 불 때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생활양식의 변화가 많은 것을 뜻한다. Cronbach's α 계수로 측정된 생활변화 척도의 신뢰도는 .84였다. 본 연구에서 IMF이후 가정내 생활의 변화의 평균점수는 1점~4점 범위에서 2.77로 나타났다.

2) 부모의 양육태도 척도

부모의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는 Lempers(1989)가 구성한 29개 문항에 근거를 두었으나, 질문문항수를 조정하기 위해 우리문화에 맞지 않거나, 내용적으로 다소 중복된 18개 문항을 삭제하고 본 연구자가 3문항을 추가하여 총 14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

다(4점)'으로 평가하는 Likert식 4점척도로 평가되었다.

한편, 부모의 양육태도의 각 문항에 대한 varimax 회전방식을 이용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모의 비일관적인 양육태도와 애정-거부적 양육태도를 중심으로 구성된 Lempers (1989)의 척도와는 다르게, 본 연구에서는 애정-거부적 요인에서 거부적 요인이 비일관적 양육태도 요인과 결합되었고, 애정적 양육태도만이 남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거부적이고 비일관적인 양육태도를 거부·비일관적 양육태도로 명명하고 부모의 양육태도를 거부·비일관적 양육태도(8문항)와 애정적 양육태도(6문항)로 분류하였다. 각 요인들에 대한 신뢰도는 아버지의 경우 각각 .85, .78였으며, 어머니의 경우는 각각 .84, .79로 나타났다.

3) 부모의 내-외향성 척도

부모의 인성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는 Eysenck와 Eysenck(1975)가 제작한EPQ(Eysenck Personality Questionnaire)를 이현수(1985)가 한국인에 맞게 표준화하여 재구성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래 EPQ는 외-내향성, 신경증적 성향 또는 신경성, 정신병적 성향 또는 강인성, 그리고 허위성의 네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외-내향성 요인만을 이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향성과 내향성을 측정하는 총 15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으로 평가하는 Likert식 4점척도로 구성하였다.

또한,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varimax 회전방식을 이용한 요인분석을 한 결과 기존 연구의 요인들과 일치함을 확인하였고, 내향성을 측정하는 문항의 경우는 점수를 역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외향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도록 하였다. 부모의 내-외향성 문항간의 신뢰도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경우 각각 .81로 나타났다.

4) 부모의 우울감 척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부모의 우울감을 측정하

기 위해 Radloff(1977)의 CES-D(The Center for Epidemic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를 안귀여루(1988)가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본래의 20개의 문항 중 3개의 문항을 삭제하고 17문항을 이용하였다. 우울감 정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 Likert식 4점척도로 평가하였으며, 긍정적인 정서를 측정하는 문항은 점수를 역산하여 우울감의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감을 많이 경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우울감 척도의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한 결과 아버지는 .92, 어머니는 .90으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3. 조사절차 및 자료분석 방법

경제적 어려움에 관한 국내의 연구가 거의 없기 때문에 각 문항들이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서울,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아동과 그들의 부모들 52쌍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본조사는 1998년 8월 27일에 경기도에 있는 중학교 1, 2, 3학년 대상자로 실시하였으며, 질문지는 담임선생님을 통해 아동에게 배부하여 아동용과 아버지용, 어머니용의 질문지를 완성하게 한 후 회수하도록 하였다. 총 700부 중 552부만이 회수되었고 무응답과 불성실하게 응답한 24부와 편부모가정에 해당하는 41부를 제외하여 총 487부를 분석하였다. 각 측정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구하기 위해 요인분석과 Cronbach's α 를 산출하였다. 부·모의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인들간의 관계는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로 검증하였으며, 각 설명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경제적 상황과 부모의 내-외향성에 따른 부·모의 양육태도를 살펴보기 위해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경제적 상황변화, 부모의 우울감, 부·모의 양육태도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본 연구에서는 가정의 수입변화를 수입이 그대로이거나 증가한 집단, 10% 감소한 집단, 20%

감소한 집단, 30%이상 감소한 집단의 네 집단으로 나누었고, 아버지 직업상태의 변화는 직업의 변화가 없거나 좀 더 나은 직장으로 옮긴 집단과 전보다 못한 직장으로 옮기거나 실직한 집단의 두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리고 IMF이후 가정내 생활의 변화는 변화정도의 평균을 중심으로(M=2.77) 변화가 작은 집단과 큰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한편, 부모의 내-외향성요인은 아버지(M=2.63)와 어머니(M=2.40) 각각의 평균을 중심으로 외향성과 내향성의 두 집단으로 분류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경제적 상황, 부모의 내-외향성, 부모의 우울감과 부모의 양육태도와의 관계

가정내 경제적 상황과 부모의 내-외향성 및 우울감 그리고 부모의 양육태도(거부·비일관적 양육태도/애정적 양육태도)와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을 하였다. 이를 위하여 수입의 변화와 직업의 변화정도를 등간척도화하였고, 생활의 변화는 본래 문항의 등간척도점수를 그대로 이용하여 평균으로 상관관계를 측정하였다.

또한, 경제적 상황과 부모의 내-외향성 및 부모의 우울감 등의 독립변인들 가운데 부·모의 양육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파악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인으로는 경제적 상황(수입의 변화/직업의 변화/생활의 변화)과 부모의 내-외향성 그리고 부모의 우울감으로 5개 변인이 포함되었고, 부모의 양육태도를 거부·비일관

적 양육태도와 애정적 양육태도로 나누어 각각 종속변인으로 하여 단계별(stepwise) 투입방식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변인은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1) 아버지의 양육태도

아버지의 거부·비일관적 양육태도는 경제적 상황의 변화와 내-외향성 및 우울감과 유의한 상관이 없었으며, 아버지의 애정적 양육태도는 아버지의 내-외향성($r=.13, p<.01$)과 정적으로 관련이 있어 아버지가 외향적일수록 애정적 양육태도는 높게 나타났으며, 직업의 변화($r=-.15, p<.01$) 및 아버지의 우울감($r=-.13, p<.01$)과는 부적으로 관련이 있어 아버지의 직업변화와 우울감이 적을수록 애정적 양육태도는 낮게 나타났다. 한편, 아버지의 거부·비일관적 양육태도에 미치는 설명변인들의 영향력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표 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아버지의 애정적 양육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직업의 변화($\beta=-.13, p<.01$)와 아버지의 내-외향성($\beta=.11, p<.05$)의 순으로 나타났다.

2) 어머니의 양육태도

어머니의 거부·비일관적 양육태도는 어머니의 우울감($r=.14, p<.01$)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고 어머니의 내-외향성($r=-.10, p<.05$)과는 부적의 상관을 보여, 어머니의 우울감이 크고 내향적일수록 거부·비일관적 양육태도를 보였다. 반대로,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태도는 어머니의 내-외향성($r=.11, p<.05$)과 정적으로 관련이 되었으며 어머니의 우울감($r=-.10, p<.05$)과는 부적으로 관련이 되어, 어머니가 외향적이고 우울감이 적을수록 애정적 양육태도를 보였다. 한편, <표 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어머니의

<표 1> 아버지의 애정적 양육태도에 대한 독립변인들의 중다회귀분석

	β	R^2	ΔR^2	$F \Delta R^2$
직업의 변화	-.13**	.02	.02	9.41**
아버지의 내-외향성	.11*	.03	.01	5.29*

* $p<.05$ ** $p<.01$ *** $p<.001$

<표 2> 어머니의 거부·비일관적 양육태도에 대한 독립변인들의 중다회귀분석

	β	R^2	F
어머니의 우울감	.14**	.02	9.16**

** $p<.01$

거부·비일관적 양육태도에는 어머니의 우울감 ($\beta=.14, p<.01$)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태도에 대해서는 어떠한 변인들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2. 경제적 상황과 부모의 양육태도간의 관계에서 부모의 내-외향성의 중재효과

경제상황에 따른 부모의 양육태도가 부모의 내-외향성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부모의 내-외향성요인의 중재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가정의 수입변화 정도, 아버지 직업의 변화 그리고 가정내 생활의 변화 각각과 부모의 내-외향성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거부·비일관적 양육태도, 애정적 양육태도 각각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1) 아버지의 양육태도

아버지의 거부·비일관적 양육태도에서는 경제적

상황의 변화와 아버지의 내-외향성간의 어떠한 상호작용효과도 나타나지 않았으나, 아버지의 애정적 양육태도에서는 경제적 상황 지표 중에서 수입의 변화에서만 아버지 내-외향성의 주효과 뿐 아니라, 수입의 변화와 아버지의 내-외향성간의 상호작용효과($F=2.98, p<.05$)가 나타났다(〈표 3〉). 즉, 전반적으로 아버지가 외향성일수록 아버지의 양육태도는 더 애정적으로 지각되었지만(내향성인 집단($M=2.63$)/외향성인 집단($M=2.80$)), 이러한 차이는 수입의 변화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나타내어 수입의 변화가 없는 가정의 아들은 내향적인 아버지의 양육태도를 더 애정적으로 지각했으며, 반대로 수입의 변화가 있는 다른 세 집단의 아들은 외향적인 아버지의 양육태도를 더 애정적으로 지각했다(〈그림 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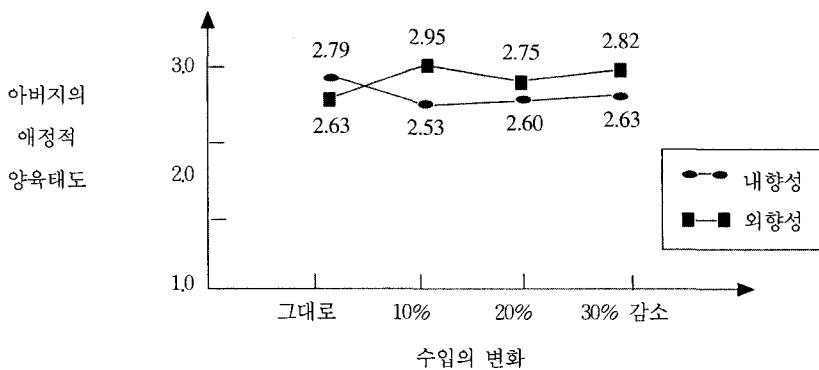
2) 어머니의 양육태도

어머니의 거부·비일관적 양육태도는 가정의 경제적 상황의 변화와 어머니 내-외향성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어머니의 애정적 양

〈표 3〉 아버지의 애정적 양육태도에 대한 수입의 변화와 아버지의 내-외향성의 이원변량분석

	SS	DF	MS	F
수입의 변화(A)	0.25	3	8.17E-02	0.27
아버지의 내-외향성(B)	3.77	1	3.77	12.32***
수입변화×내-외향성(A×B)	2.73	3	2.98	2.98*

* $p<.05$ *** $p<.001$



〈그림 1〉 수입의 변화와 아버지의 내-외향성에 따른 아버지의 애정적 양육태도

육태도에서는 가정의 경제적 상황의 지표 중에서 직업의 변화와 어머니 내-외향성간의 상호작용 효과($F=6.49, p<.05$)가 나타났다(〈표 4〉). 즉, 직업의 변화와 어머니의 내-외향성은 각각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태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한편 상호작용하여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쳤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반적으로 경제불황 이후 직업의 변화가 없거나 좀 더 나은 직장으로 옮긴 가정의 아동이 실직하거나 좀 더 못한 직장으로 옮긴 가정의 아동보다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더 애정적으로 지각했다(직업의 변화가 없는 집단($M=2.92$)/직업의 변화가 있는 집단($M=2.81$)). 또한, 직업의 변화가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머니 내-외향성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 어머니가 내향적인 경우에 아버지 직업상태의 변화에 따라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태도는 차이가 없는 반면, 외향적인 경우는 직업의 변화가 있는 가정의 아동이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가장 덜 애정적으로 지각했다(〈그림 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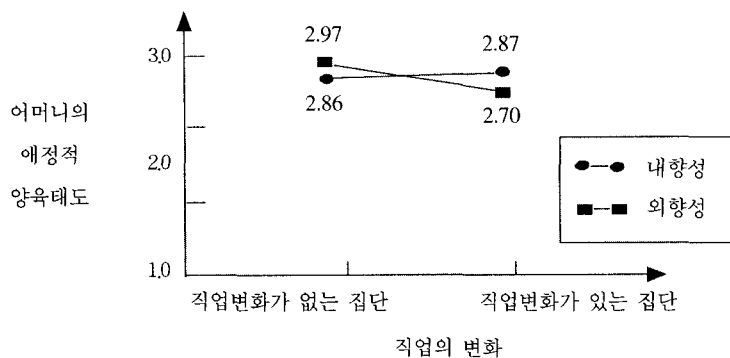
3. 경제적 상황과 부모의 양육태도간의 관계에서 부모의 우울감의 매개효과

부모의 우울감은 가정의 경제적 상황과 부모의 양육태도간의 관계에서 중요한 매개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예상되므로, 가정의 경제적 상황과 부모의 양육태도 그리고 부모의 우울감에 대한 더미변수를 이용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즉 수입의 변화의 경우 4개의 범주로 나뉘어져 있으므로 3개의 더미변수가 도입되고 직업의 변화와 생활의 변화의 경우는 각각 두 집단으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각각 새로운 하나의 더미변수가 첨가되었다. 그리고 매개효과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한 방법으로 Baron과 Kenny(1986)의 모델에 근거하여 경로분석을 시행하였다. 즉, 첫 번째 단계에서, 독립변인인 가정의 경제적 상황이 종속변인인 부모의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 먼저 매개변인인 부모의 우울감에 미치는 독립변인인 가정의 경제적 상황의 영향

〈표 4〉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태도에 대한 직업의 변화와 어머니의 내-외향성의 이원변량분석

	SS	DF	MS	F
직업의 변화(A)	1.15	1	1.15	4.10*
어머니의 내-외향성(B)	7.32E-02	1	7.32E-02	0.26**
직업변화×내-외향성(A×B)	1.82	1	1.82	6.49*

* $p<.05$ ** $p<.01$



〈그림 2〉 직업의 변화와 어머니의 내-외향성에 따른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태도

력을 알아보고, 다음으로 매개변인(부모의 우울감)이 통제되었을 때의 가정의 경제적 상황의 설명력이 어느 정도 감소하는지를 알아보았다.

1) 아버지의 양육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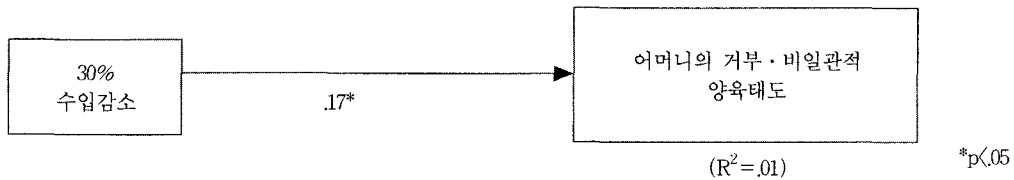
아버지의 거부·비일관적 양육태도는 가정의 경제적 상황의 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버지의 애정적 양육태도는 가정의 경제적 상황의 변화 중에서 직업의 변화만이 아버지의 애정적 양육태도에 유의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beta=-.15, p<.01$), 직업의 변화와 아버지의 애정적 양육태도간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우울감을 매개로 한 영향은 없었다.

2) 어머니의 양육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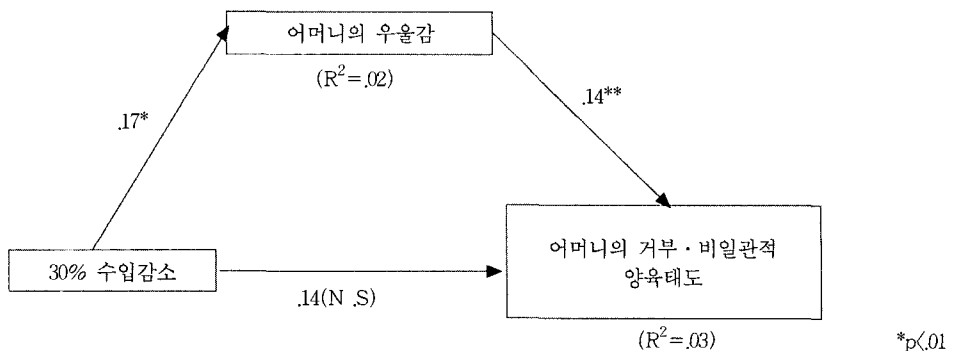
가정의 경제적 상황의 변화 중에서 수입의 변화는 어머니의 거부·비일관적 양육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에 수입의 변화와 어머니의 거부·비일관적 양육태도, 어머니의 우

울감간의 경로를 알아보려고 우선, 수입의 변화가 어머니의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수입의 변화와 어머니의 우울감이 어머니의 거부·비일관적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 보았다. 그 결과, 수입이 30%이상 감소한 집단의 경우에만 매개효과가 나타났으며, 나머지 집단에서는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첫 번째 단계의 분석결과, IMF이후 수입이 30%이상 감소한 경우($\beta=.17, p<.05$) 어머니의 거부·비일관적 양육태도에 유의하게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그림 3>참조), 두 번째 단계의 분석결과, 가정내 수입이 30%이상 감소한 집단은 어머니의 우울감에 영향을 주고($\beta=.17, p<.05$), 이러한 어머니의 우울감은 어머니의 거부·비일관적 양육태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beta=.14, p<.01$) 나타났다. 그러나 어머니의 우울감이 통제되었을 때, 30%이상의 수입감소가 어머니의 거부·비일관적 양육태도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아(<그림 4> 참조), 이러한 결과는 가정의 수입의 변화가 가장



<그림 3> 어머니의 거부·비일관적 양육태도에 대한 수입변화의 예언력



<그림 4> 어머니의 거부·비일관적 양육태도에 대한 수입변화와 어머니의 우울감의 경로분석

큰 집단의 경우에는 수입감소와 어머니의 거부·비일관적 양육태도간의 사이에서 어머니의 우울감이 완전한 매개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가정의 경제적 상황과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태도사이에서 어머니의 우울감은 어떠한 매개효과도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내지 않았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IMF 경제불황이후 가정의 경제적 상황 변화와 부모의 내-외향성 그리고 부모의 우울감이 부모의 양육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부모의 내-외향성과 부모의 우울감의 두가지 변인이 가정의 경제적 상황 변화와 부모의 양육태도간의 관계에 어떠한 중재 및 매개효과를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1. 경제적 어려움, 부모의 내-외향성, 부모의 우울감 그리고 부모의 양육태도간의 관계

아버지의 애정적 양육태도는 직업의 변화와 우울감이 클수록 낮았고, 아버지가 외향성일수록 높았다. 중다회귀분석결과, 아버지의 애정적 양육태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직업의 변화였고, 그 다음으로 아버지의 내-외향성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어머니의 거부·비일관적 양육태도는 우울감이 높을수록 많이 나타났으며, 어머니가 외향성일수록 적게 나타났다. 중다회귀분석 결과, 어머니의 거부·비일관적 양육태도에 어머니의 우울감만이 유의하게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긍정적인 인성특성을 가지고 있을수록 바람직한 양육행동을 보이며, 불안이나 우울증 그리고 부정적인 정서가 높을수록 적절치 못한 양육행동을 보인다는 Belsky와 Vondra(1993)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여기서 주목할만한 것은 아버지의

애정적 양육태도에 있어서 직업의 변화와 아버지의 외향성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이다. 이는 불안정한 아버지의 직업과 그들의 자녀들에 대한 거부적, 강압적 양육태도간의 밀접한 관계를 보고한 Whitbeck과 Simon 그리고 Conger(1997)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아직도 가부장적 사고가 지배적이고, 가정내 수입의 대부분을 아버지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의 실직은 주 소득원의 상실로 가족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아버지들에게 큰 부담과 죄책감을 가져온다(박민선, 1998). 또한, 우리나라의 많은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은 경제적인 측면에 한정되어 있고, 자녀들에 대한 정서적인 역할은 주로 어머니들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일을 통해서 권위와 가치를 인정받았던 아버지들에게 실직은 존재 그 자체의 상실이라고 할만큼의 충격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어머니의 양육태도에서는 경제적 변화 지표 자체보다는 어머니의 우울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경제위기로 인한 가정의 실직이나 가계 수입의 감소가 어머니로 하여금 불안정한 정서를 경험하게 하고 이것이 자녀에 대한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즉, 경제적 어려움은 다른 가족원들보다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아버지에게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은 어머니의 불안정한 심리상태에 파급효과를 미쳐 간접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고 할 수 있다.

2. 가정내 경제적 상황과 부모의 양육태도간의 관계에서 부모의 내-외향성의 중재효과

수입의 변화는 아버지의 내-외향성과 상호작용하여 아버지의 애정적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쳤다. 즉, 수입의 변화가 큰 가정의 아동은 아버지가 외향적일 때 아버지의 양육태도를 더 애정적으로 지각했다. 한편,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태도는 직업의 변화와 어머니의 내-외향성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으며, 직업의 변화가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머니의 내-외향성에 따라 차이를 나타냈

다. 즉, 직업의 변화가 큰 가정의 아동은 어머니가 내향적일 때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더 애정적으로 지각했다.

위와 같은 결과는 같은 정도의 경제적 스트레스 상황에 있더라도 부모의 내-외향성에 의해서 부모의 양육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내-외향성이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반응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길연하, 1996)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또한, 부모의 내-외향성이 경제적 상황과 부모의 양육태도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부와 모에 따라 다른 양상을 나타내었다. 즉, 수입의 변화가 큰 가정의 아동은 아버지가 외향적일수록 아버지의 양육태도를 더 애정적으로 지각하였다. 따라서, 아버지의 경우에는 외향적인 집단이 사회적 관계망 형성에 참여하고 스트레스 사건에 대해 적극적 대처방식을 선택함으로써 보다 긍정적인 감정을 경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직업의 변화가 큰 가정의 아동은 어머니가 외향적인 경우보다 내향적인 경우에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더 애정적이라고 지각하였다. 이같은 결과는 어머니의 경우에는 내향적인 집단이 외부 자극이 증가하면 이것을 줄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양육행동에 특별한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추론은 보다 체계적인 추후연구를 통해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3. 가정내 경제적 상황과 부모의 양육태도간의 관계에서 부모의 우울감의 매개효과

아버지의 우울감은 가정의 경제적 상황과 아버지의 양육태도간의 관계에서 어떠한 매개적 역할도 하지 못했다. 한편, 어머니의 우울감은 수입의 변화와 어머니의 거부·비일관적 양육태도 사이에서 매개적 역할을 하였는데, 가정의 수입의 30%이상 감소는 어머니의 우울감을 매개로 하여 어머니의 거부·비일관적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쳤다. 즉, 경제적 어려움은 어머니의 거부·비일관적 양육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어머니의 우울감

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앞서 언급했듯이, 부모의 우울감이 경제적 스트레스와 부모의 양육태도 사이에서 매개적 역할을 한다는 Patterson 외(Patterson, 1982; Elder et al., 1984; Conger et al., 1994)의 연구결과는 경제적 어려움은 부모의 우울이나 불안감, 짜증 등을 불러일으키고, 이러한 감정상태는 다시 자녀에 대한 양육태도를 변화시키게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경제적 어려움과 부모의 양육태도간의 관계에 미치는 부모의 우울감의 매개효과는 아버지의 양육태도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어머니의 양육태도에서만 나타났다. 따라서, 아버지의 실직은 아버지들의 정서상태에 영향을 미쳐서 우울이나 근심, 회색감을 증가시키고, 그들의 자녀에 대해 관심과 애정을 쏟을 수 있는 여유를 상실하게 하며 거부적인 태도로 자녀들을 대하게 한다는 Buss와 그의 동료들(1983)의 연구결과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서양과는 달리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자녀양육의 책임은 어머니들이 담당하고 있으며, 아버지들은 가족원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부양하는 직업의 역할에 전념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재정적인 압박은 아버지의 우울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그치며, 아버지의 우울감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아버지의 양육태도의 변화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경제불황 상황에서 아버지의 양육태도는 직업의 변화와 아버지의 내-외향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어머니의 양육태도에는 어머니의 우울감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또한, 가정내 경제적 상황의 변화와 부모의 양육태도간의 관계는 부모의 내-외향성에 따른 차이를 나타내어 부모의 내-외향성이 중재효과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즉, 아버지의 양육태도는 경제적 어려움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만을 받았던 반면에,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경제적 어려움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어머니의 우울감을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연구대상을 주로 중하류층으로 한정하

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적이며, 연구설계에서 경제불황 이후에 달라진 부모의 정서상태와 부모의 양육태도를 질문한 횡단적 연구이므로 경제불황의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는 보다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경제적 어려움 이전의 가족관계나 가족의적 요인 등 여러 변인들을 동시에 고려한 종단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제한점들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거시경제적인 체계, 즉 경제불황이라는 사건이 어떠한 과정으로 부모 자신의 체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았고, 또한 부와 모가 자신의 역할로 인해 서로 다른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제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수성에 비추어 부모의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정서성 요인의 역할을 조명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 참고문헌

- 1) 길연하(1996). 성격특성에 따른 스트레스의 지각과 대처.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2) 박민선(1998). 경제불황에 따른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적응.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 논문.
- 3) 박성연(1998). 경제불황 스트레스와 가족관계 및 아동의 적응행동. 『IMF 관리체제에서 아동·청소년 생활변화와 적응』. 1988년도 한국아동학회 춘계 학술대회 자료
- 4) 안귀여루(1988). 스트레스와 관련된 사회적지지 완충효과의 성차.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5) 이상희(1994). 내-외향성 및 통제소재와 불안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6) 이주성(1991). 외향성과 신경증적 경향성의 상호작용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7) 전현진(1996). 부모의 아동기 경험, 내-외향성 및 결혼만족도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8) 최명선(1998). 경제위기하에서 아동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변인의 구조분석.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9) 허승연(1998). 경제위기로 인한 부모의 양육태도 변화와 가족응집성 변화가 아동의 디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10) Belskey, J. & Vondra, J. (1993). Developmental origins of parenting: Personality and relationship factors. In Luster, T. & Okagaski, L. (Eds.), *Parenting: An Ecological Perspective*. Hillsdale: Lawrence Erlbaum, 227-250.
- 11) Buss, T., & Redburn, F. S. (1983). *Mass unemployment: Plant closings and community mental health*. Beverly Hills, CA: Sage.
- 12) Conger, R., McCarty, J., Yang, R., Lahey, B., & Kropp, J. (1984). Perception of child, child rearing values, and emotional distress as mediation links between environmental stressors and observed maternal behavior. *Child Development*, 54, 2234-2247.
- 13) Conger, R., Conger, K., Elder, G., Lorenz, F., & Simons, R., & Whitbeck, L. (1992). A Family process model of economic hardship and adjustment of early adolescent boys. *Child Development*, 63, 526-554.
- 14) Conger, R., GE, X., Elder, G., Lorenz, F., & Simons, R. (1994). Economic stress, coercive family process, and developmental problems of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65, 541-561.
- 15) Crinic, K., & Greenberg, M. (1987). Maternal stress, social support, and coping: Influences on the early mother-child relationship. In C. Boukydis (Ed.), *Research on support for parents and infants in the postnatal period* (pp. 25-40). Norwood, NJ: Ablex.
- 16) Elder, G. (1974). *Children of the Great Depress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17) Elder G. (1979). Historical change in life patterns and personality. In P. Baltes & O. Brim (Eds.), *Life span development and behavior* (Vol. 2, pp. 117-159). New York: Academic Press.
- 18) Elder, G. H., Jr., Caspi, A., & Downey, G. (1986). Problem behavior and family relationships: Life course and intergenerational themes. In A. Sorensen, F. Weinert, & L. Sherrod (Eds.), *Human development and the life course* (pp. 233-240).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19) Elder, G., Liker, J., & Cross, C. (1984). Parent-child behavior in the Great Depression: Life course and intergenerational influences. In P. Baltes & O. Brim (Eds.), *Life-span development and behavior* (Vol. 6, pp. 109-158). Orlando, FL: Academic Press.
- 20) Elder, G., Nguyen, T. V., & Caspi, A. (1985). Linking family hardship to children's lives. *Child Development*, 56, 361-375.
- 21) Flanagan, C. (1988). *The effects of a changing economy on the socialization of children's academic and vocational aspirations*. Paper presented at the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New Orleans.
- 22) Flanagan, C., & Eccles, J. (1993). Changes in parents' work status and adolescents' at school. *Child Development*, 64, 246-257.
- 23) Lempers, J., Clark-Lempers, D., & Simons, R. (1989). Economic hardship, parenting, and distress in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60, 25-39.
- 24) Longfellow, C., Zelkowitz, P., & Saunders, E. (1982). The quality of mother-child relationships. In D. Belle (Ed.), *Lives in stress: Women and depression* (pp. 163-176). Beverly Hills, CA: Sage.
- 25) McLoyd, V. (1990). The impact of economic hardship on black families and children: Psychological distress, parenting, and socioemotional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61, 311-346.
- 26) McLoyd, V., Jayaratne, T., Cebello, R., & Borquez, J. (1994). Unemployment and work interruption among African American Single mothers: Effects on parenting an adolescent socioemotional functioning. *Child Development*, 65, 562-589.
- 27) McLoyd, V., & Wilson, L. (1991). Maternal behavior, social support, and economic conditions as predictors of psychological distress in children. In V. C. McLoyd & C. Flanagan (Eds.), *New directiond for child development, Economic stress: Effects on family life and child development*.
- 28) Patterson, G. (1982). *Coercive family process*. Eugene, OR: Castalia.
- 29) Patterson, G. (1988). Stress: A change agent for family process. In N. Garnezy & M.
- 30) Romero, G., Castro, F., & Cervantes, R.(1988). Latinas without work: Family, occupational, and economic stress following unemployment.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12, 281-297.
- 31) Whitbeck, L., Simons, R., Conger, R., Lorenz, F., Huck, S., & Elder, G.(1991). Family economic hardship, parental support, and adolescent self-esteem. *Social Psychology Quarterly*, 54, 353-363.
- 32) Wilson, M. (1984). Mother's and grandmother's perspectives of parental behavior in three-generational black families. *Child Development*, 55, 1333-1339.
- 33) Zelkowitz, P. (1982). Parenting philosophies and practices. In D. Belle (Ed.), *Lives in stress: Women and depression* (pp:154-162). Beverly Hills, CA: Sage.